

KT&G 상상마당이 한국 사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2007년 KT&G 상상마당 개관과 함께 시작된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KT&G 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 이하 KT&G SKOPF)이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KT&G 상상마당을 대표하는 작가 지원 프로그램인 KT&G SKOPF는 그동안 54명의 한국 사진 작가를 지원하고 최종 작가 18명의 개인전 개최와 작품집을 발간하며 국내 유수의 사진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제16회 SKOPF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김민주초원, 김찬훈, 하다원은 시류에 편승하거나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오롯한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들입니다. 각기 다른 세 명의 올해의 작가들은 한국 사진의 현재와 미래가 매우 다채롭고 밝음을 시사해 줍니다. KT&G SKOPF를 통하여 김민주초원, 김찬훈, 하다원 작가가 한 발 더 정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진심 어린 응원과 축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KT&G SKOPF 작가들을 잘 이끌어 주신 심사위원장 윤정미 선생님, 심사위원 김영석, 김옥선, 이재구, 최연하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2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KT&G SKOPF는 한국 사진의 발전을 위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축적된 시간만큼 더욱 의미 있는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국 사진의 미래 주역들이 KT&G SKOPF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이루길 바라며, KT&G 상상마당은 한국 문화·예술 저변화 확대에 기여하고 젊은 예술가와 함께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6회 KT&G SKOPF

2025년 제16회 KT&G SKOPF 공모에도 많은 사진가들이 뛰어난 작업들을 응모해 주셨습니다. 응모된 작품들은 작업의 일관성, 창의성,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최종 선정된 10인의 작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작업 의도와 프린트의 완성도, 심도 있는 질문과 응답 등을 바탕으로 올해의 사진가 3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사진가는 김민주초원, 김찬훈, 하다원(가나다 순)입니다.

김민주초원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삶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포착해왔습니다. 동화 같은 환경에서의 셀프 포트레이트, 현대인이 복용하는 약을 주제로 한 작업 《How are you today?_건강하고 긴 삶》등, 그의 작업은 알록달록한 색채감과 독특한 시각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왔습니다. 신작 《기상천외달콤한병원》는 선풍기 하나 없이 무더운 여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바탕으로 생존을 위한 사탕, 초콜릿, 상비약, 음료 등이 작업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 소재들은 아픈 이들이 많은 대학병원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탈바꿈하여, AI와 결합된 사진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더 나은 이상을 꿈꾸는 ‘보통’ 사람들의 이상을 낙천적이고 경쾌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김찬훈은 전작 《맑은 풍경》에서부터 일관되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 풍경을 탐색하고 기록해왔습니다. 신작 《들판》 역시 본인이 사는 지역인 도봉구에서 출발해 철원까지 이어지는 ‘평화로’를 따라 걸으며 촬영한 작업으로, 도시의 풍경과 그 안의 사람들을 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단단한 사진적 구성으로 어우러진 인물과 풍경은, 마치 작가와 함께 고독한 여정을 동행하는 듯한 감각을 느끼게 해줍니다.

하다원은 전작에서 친할머니의 흔적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낸 데 이어, 새로운 작업 《머리에 비단을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에서는 외할머니 ‘금희’의 기억을 중심에 둡니다. 그의 작업은 할머니 세대의 삶, 나아가 20세기 후반 여성들의 노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이전 작업이 할머니 집에서 촬영된 아웃포커싱된 따뜻한 사진들로 작가의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인 온기를 전했다면, 신작은 외할머니의 구술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사진, 기억을 더듬으며 할머니가 그리신 드로잉, 할머니가 보았을지도 모를 장소들에 대한 사진들 등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시로 잘 구현될지 더욱 기대됩니다.

올해의 사진가 선발 심사문

올해 선정된 SKOPF 사진가들은 기존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자신의 작업 세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진을 단순한 기록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동시대 삶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응답의 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작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전시로 구체화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2025년 6월

제16회 KT&G SKOPF 심사위원장 윤정미
심사위원 김영석, 김옥선, 이재구, 최연하 일동

MANIFESTO OF SKOPF

4

KT&G 상상마당은 2008년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KT&G 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 이하 KT&G SKOPF)를 시작하여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진작업은 무엇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가들을 지원하여 전시와 출판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그리고 지난 6년의 시간 속에 사진을 찍고 보는 사람들의 감성과 생각이 변했다. 또 사진을 만들고 소통시키는 제도도 변했다. 그런 변화를 담아서, KT&G 상상마당은 새로운 매니페스토를 준비했다. 이 매니페스토는 KT&G 상상마당이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닌, 스코프 프로그램이 작가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것은 스코프의 소망이기도 하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다.

①

시각성에 대한 고민: 인간은 눈이 달려 있는 한 끊임없이 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보면서 알아나간다'로 바뀌어야 한다. 눈은 머리가 시키는데 따라 데이터를 접수하는 수동적인 스캐너가 아니라 탐색하며 생각하는 감각기관이기 때문이다. 결국 사진은 본다는 문제를 탐색하는 예술이다. 본 것을 기록하고, 해석하고, 변형하고 퍼트리는 것이 사진이 하는 일이다. 이 시대의 사진 작업은 바로 그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인간은 왜 보는가, 왜 사진을 보는가, 왜 사진으로 보는가, 어떻게 하면 다르게 볼 것인가 등의 문제를 말이다. 요즘의 사진가들은 그 점을 잊은 것 같다. 맑은 눈으로 보기 전에 오염된 말들로 해석해 버리고 재단해 버린다. 사진은 보는 문제를 떠나 말의 잔치가 되고 말았다. 사진은 말의 게임이기 앞서 시각의 게임이다. 그 점을 잊지 말고 다루는 작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②

차별화의 태도: 기존의 사진 흐름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 사진은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도 선배나 선생 세대의 것을 답습하는 경향이 크다.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상 같은 소재, 같은 양식의 사진들이 복제될 것이다. 작가란 어떤 좋은 사진을 보는 순간 '따라 해야 겠다'가 아니라 '나는 다르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존재이다. 기존의 작가들은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는다. 그래서 그들의 작업은 남의 말들의 메아리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양식화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남의 것을 차용하는 작업도 너무 많다. 작가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 세상의 온갖 좋은 소리들에 과감하게 귀를 닫고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저절로 남들과 차별화된 사진이 나올 것이다.

③

탐험하는 사진: 우리가 아는 동서고금의 대가들은 다 새로운 시각적 표현의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탐험가들이었다. 결국 예술작업이란 남이 가지 않은 낯설고 거친 길을 찾는 것이다. 낯설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면 새로운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산에 가려면 등산화가 필요하고 수영을 하려면 신발을 버려야 하듯이, 신발을 바꿔 신으면 걷는 방법과 가는 곳이 바뀐다. 새로운 방법에 대한 모색은 새로운 나침반, 새로운 지도, 새로운 바퀴, 나아가 새로운 엔진을 요구한다. 사진에서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안주하는 사진이 아니라 탐험하는 사진이 필요하다.

④

유머감각이 있는 사진: 유머란 단순히 값싼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설픈 패러디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유머란 이제까지 받아들여져 왔던 감각과 의미를 비틀어 다르게 해석하는 센스이다. 유머감각이 부족한 우리 사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머가 부족한 예술이 사진이다. 도무지 무겁고 심각하기만 했지 세상 구석구석 숨어 있는 의미의 편린들을 재치 있게 잃어내지 못하는 사진이라는 예술을 바꾸려면 유머감각이 있어야 한다. 유머감각이란 곧은 것에서 굽은 것을 보고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밝은 눈이다. 유머는 창의적 에너지의 근원이다.

⑤

사진의 자리에 대한 고민: 사회 속에서 사진의 위상에 대해 고민한다는 것이 소위 사회적 주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는 시대의 고통을 담은 사진도, 심오한 예술사진도 소비의 격랑 속에 파묻혀 금방 의미가 탈색되거나 엉뚱한 맥락으로 전환되고 만다. 이럴 때 진지한 사진 작업은 사회의 다양한 시각문화의 스펙트럼에서 사진 스스로가 어디에 위치해 있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이 사회에는 다양한 사진의 자리들이 있다. 사진의 구멍가게도 있고 백화점도 있다. 골목도 있고 광장도 있다. 내 사진의 메시지를 어떤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출판일 수도 있고 남들이 안 하는 방식의 전시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블로그일 수도 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사진의 장소를 모색하는 것은 소중한 일이다.

5

궁극적으로,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이제껏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시선, 다른 기술, 다른 방법을 가진 사진을 상상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그 상상의 꿈이지 사진에 나타난 소재 자체는 아니다. 지금의 사진에는 꿈이 없다. KT&G 상상마당의 스코프는 꿈꾸는 사진을 기다린다. 스코프는 꿈을 위한 모색과 연구, 작업의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

2014년 2월

〈KT&G 상상마당 한국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운영위원회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방향성을 보다 명료하게 전달하고자 매니페스토를 개정하였습니다. 2014년 7월부터 매니페스토를 적용합니다.

들판

23년 겨울, 서울 북부로 이사했다. 첫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낯설었다. 의정부에서 평화로를 따라 집으로 가는 길, 뽕뽕한 아파트 단지와 인적이 드문 마을을 지나 집 주변을 에워싼 병커를 통과해야 비로소 집에 다다른다. 낯선 풍경은 북쪽이라는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나는 기묘한 풍경을 따라 철원까지 이어진 평화로에서 더 북쪽으로 향했다.

평화로는 서울 도봉구를 지나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 연천을 거쳐 철원에 닿는다. 서울을 벗어나면 고층 건물이 줄어들고,단층 주택들과 별판이 뒤섞여 낮게 퍼져 있다. 어수선한 장소의 틈에서 무엇인가 불쑥 튀어나온다. 건물을 짓기 위해 비워둔 들판 한가운데, 늘어진 천이 전부 가리지 못한 거대한 바위와 마주친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교각 아래로 기차가 지나가면, 바람에 흔들리는 푸른빛의 비닐 별채가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은 풍경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 평화로를 따라 이어진 지역들은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했다. 한때 농촌이었던 의정부는 군사가 주둔하며 도시가 되었고, 사람이 붐비던 철원은 접경지역이 되며 자연으로 되돌아갔다. 북쪽으로 갈수록 전쟁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긴장감이 돌 것만 같았다. 그러나 여느 도시와 같이 사람들은 느릿하게 움직이는 땅에서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고, 이어가며 삶에 삶을 덧대며 살아간다. 이곳의 순간들은 앞선 순간들을 밀고 당기며 나를 도시 속속 과거의 시간으로 밀어 넣었다. 나는 이 어렴풋한 시간의 한복판에 아슬하게 서 있는 기분이 들었다.

도시는 평야를 향해 힘없이 내려앉는다. 풍경은 웅성거림 속에 엇갈리고 부딪히며 산산이 흩어져 있다. 흩어져 있는 풍경과 사람, 그리고 모든 말들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길 끝에 다다른다. 이런 모든 존재가 마치 하나의 들판에서 공존하는 것만 같다. 이 여정은 거대한 땅을 배회하며 표면을 채집하고, 여전히 희미한 과거의 시간을 걷는 과정이다.



산곡동, 의정부시



소요동, 동두천시

2024



보산동, 동두천시

2025



봉양동, 양주시

2024



동두천동, 동두천시

2025



저 들(판)에 불을 놓아 – 김찬훈 사진의 새로운 길 찾기

김찬훈의 《들판》 연작은 길 위에서 조우한 ‘풍경’과 ‘집’, ‘사람’의 이야기로 나뉜다. 길을 따라 자동차로 이동하다 촬영을 위해 멈춘 곳에서 현장 촬영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그 길’이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김찬훈 사진의 전경과 배경으로 등장하는 ‘평화로(平和路)’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주요 도로이다. 국도 3호선 구간 중 경기 북동부지역의 약 65km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서울 도봉구를 기점으로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을 지나 강원도 철원에 이른다. ‘평화로’를 우회하는 도로(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주요 간선도로였다. 그러나 평화로 주변 지역에 산재한 대규모 군사시설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각종 규제로 말미암아 장기간 개발이 억제되면서, 지금은 군사시설과 산업, 상업시설이 뒤얹혀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구간이 공장과 상점, 식당 등이 혼재되어 있다면, 연천 구간은 미개발지가 넓어 ‘들판’의 면면이 색다르게 펼쳐진 상황이다.

이처럼 ‘평화로’의 풍경은 평화롭지만은 않다.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염원이 다분한 도로명이지만 정작 그곳엔 미군부대와 밀집 건축물, 고가도로 및 철도 구간으로 인해 보행 및 개인 통행 자체가 불편하고 불가능한 지역이 많다. 김찬훈이 주목한 지점은 ‘평화로’의 낮설고 기이한 풍경과 그곳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이다. 분단 이후 결코 평화로울 수 없는 ‘평화로’의 주변을 역사적인 사실과 실제 증언, 남아 있는 풍경을 직조해 《들판》에 심어 놓는 것이다. 역사적 사실에서 단절되거나 삭제된 시간의 흔적을 사진으로 포착하고, 접근이 통제되거나 인지가 열악한 상황은 풍경과 징후로 제시하고, 실재하는 이야기는 가까이 접근해 인터뷰를 통해 정리한다. 즉, 김찬훈은 리서치를 기반으로 실제 촬영과 인터뷰를 하고 역사적 장소와 장면을 채집하고 정리해 분단의 현장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김찬훈에게 있어 사진의 양식은 현실-풍경에 대한 그의 인식의 형태와 내용을 규정하는 틀로서 작용한다. ‘평화로’ 주변의 현실의 갖가지 우여곡절에 대해 누구보다도 예민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느낌과 판단을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사진의 양식을 통해 구조화한다. 사회적 풍경 속에서 사진이 지닐 수 있는 의미망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의정부 산곡동에 뽕뽕이 들어선 아파트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거대한 바위와 철원의 저녁 들판에서 무언가를 태우는 사람의 실루엣은 무거움과 가벼움, 바위의 속성인 ‘기념비’와 불의 속성인

최연하 Yeonha CHOI

‘반기념비’가 쌍을 이루며, 사라질 수 없는 분단의 흔적과 살려내야 할 기억들(불씨)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찬훈 화면의 정교함은 특별한 장소와 사람의 이야기에서 더욱 도드라진다. 한 사람이 있어야 할 장소(인테리어)와 사람의 포즈, 소품과 표정, 색조와 조명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풍경과 집을 보여주는 견고한 장면들은 사실 증명을 강화하며 역사의 현장이었음을 전면에 내세운다.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5년이 되는 해, 분단 이후 ‘평화로’의 현재를 담은 김찬훈의 《들판》 연작은 한국 전쟁을 재현하는 사진가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왜 이곳에 이러한 풍경이 남아 있는 것일까? 분단 상황이 점철되어 있는 평화로 주변의 삶의 고단한 질곡을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진 속에 ‘재현’되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과 사회 현상을 ‘재-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등. 기억의 윤리와 사진 재현의 한계, 역사 인식의 어려움을 《들판》 연작을 통해 새삼 환기하게 된다.

김찬훈이 ‘평화로’에서 만난 풍경과 사람을 보며 〈저 들에 불을 놓아〉라는 곡을 계속 읊조린다. 저녁 무렵 철원 평야의 한 농가에서 불을 피우는 장면 때문일 것이다. 정태춘은 이 노래에서 겨울을 앞둔 농촌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도 저변에는 농촌 생활의 고단함과 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제시한다. 정태춘의 노랫말과 젊은 김찬훈이 쓰다녔던 들판의 장면들이 오버랩된다. ‘초겨울 가랑비에 젖은 벼짚 낫으로 그러모아, 마른 짚단에 성냥 그어 여기저기 불 붙인다. 연기만큼이나 안개가 들판 가득히 피어’오르는 장면은 아무래도 눈을 맵게 한다. 젊은 김찬훈의 사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을 씻고 다시 보게 한다. 섬세하고 치밀한 화면 구성, 역사적 장소에 사진-불을 밝히려는 노련함, 그 장소에 일일이 찾아가 기억의 불을 밝히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작업이다.

10년째 대학병원 연구원으로 일하며 정기적으로 진료를 오는 환자들의 만남에서 가장 크게 체감한 것은 질병을 빠르게 쾌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뻔하지만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환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바 밝고 따뜻한 보호자와 함께하거나 환자 자신이 긍정적 사고로 노력하는 경우 몇 달 후 추적 검사 시 놀라울 만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긍정적이고 밝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근원이다.

병원 연구원을 비롯한 네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 또한 겪고 바라보고 들을 수 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던 일들에서 기저 본분은 사진가임을 직시하고 사진가로서의 역할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수행하고자 이 작업은 시작되었다.

누구나 방문이 가능한 로비와 병실부터 제한된 구역인 연구실 및 수술실까지 병원의 내외부를 본인 특유의 밝고 명량한 빛으로 기록했다. 환자 및 의료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작품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포토샵 내 AI를 활용하였으며 일부 이미지는 개인정보 침해의 염려가 없거나 가공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사용하였다.

네 가지 아르바이트에서 체득한 것을 활용하여 사진가이자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기상천외달콤한병원》을 완성하는 요소로서 구성하고자 했다. (네 가지 아르바이트 : 1. 병원 연구원 2. 로고 지우기가 주가 되는 스톡 이미지 리터처 3. 쿠팡 물류센터 4. 어린이 사진 수업 교사)

이미지 내에서 개인 정보 및 보안 요소를 지우고 (스톡 이미지 리터처의 역할 수행) 사탕과 초콜릿, 알약, 액체를 메인으로 AI 블렌딩하여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AI의 중심이 되는 매개체인 사탕과 초콜릿, 알약, 액체는 쿠팡 물류센터 내에서 근무 시 유일하게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이다. 물류센터 내에 휴대폰이나 지갑 등 모든 물품이 반입금지기때 일하는 동안에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버터넬 체력을 위한 소량의 사탕이나 초콜릿, 개인 비상약, 투명한 통에 담긴 음료만이 반입 가능한 구원일 뿐이다. 냉난방 시설이 없어 여름엔 실내 온도 35도가 넘는 근무지에서 그것들은 샤넬 백, 롤렉스 시계보다 소중한 소지품이 된다.

이렇게 원본과 결합하여 생성된 이미지들은 촬영한 원본이 진품이라고 가정할 때 가공하고 만들어낸 이미지와 세계가 가품이 되어 가품이 이야기하는 ‘진짜 가짜’가 결국엔 진짜보다 진짜 같은 ‘가짜 진짜’가 되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 낸다.

이 작업의 제목은 뜻밖의 반전과 기괴함, 특유의 분위기로 유명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작가 로알드 달의 소설 「기상천외한 헨리 슈거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기상천외달콤한병원》로 정하였으며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구남과여라이딩스텔라’ 이라는 밴드나 ‘어쩔수가없다’와 같은 영화 제목, 그리고 길고 긴 독일어 단어처럼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보이길 바랐다.

병원에서 사진과 영상의 역할은 질병을 증명하는 일이며 쿠팡 물류 센터에서 사진은 어떤 물건도 반입할 수 없기에 높은 직급자가 낮은 직급자의 과실을 증명하는 권위적인 증거의 역할을 한다. 《기상천외달콤한병원》은 사진의 역할을 재정의하며 어딘지 모르게 기괴하면서도 서글프고 결국엔 웃기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어쩔수가없다

가변크기, Archival Pigment Print, 2025



Brain Bakery

가변크기, Archival Pigment Print, 2025



기상천외한 중간예술

작가는 병원에서 파킨슨 환자의 심리적 또는 정신적 요소가 어떻게 환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덕분에 연구원들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나 수술실의 출입이 가능했다. 또는 열악한 환경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간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사진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10여 년을 근무하지만 비정규직이라 구내식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쓰레기로 가득한 환경에서 쉬어야 하는 근무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사회운동 사진가가 되어야 했을까? 또는 감정 없이 환자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하는 아카이브에 충실해야 하는 것인가? 작가는 어느 곳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 아니면 어느 부류의 입장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초콜릿이 놓여있는 재활용품 보관대, 딸기소스로 가득 차 있는 주사기, 커다란 빵이 보이는 인디케이터 모니터, 고양이가 앉아 있는 실험대, 크리스마스 트리가 놓인 수술대 등 우리가 알고 있던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법한 목숨이 달린 긴박한 수술장면이나 생명을 살리려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달콤하고 귀여운 사탕, 초콜릿, 케이크, 인형들이 병원의 이곳저곳을 기상천외하게 꾸미고 있다.

작가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그 공간에서 사진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다. 감시와 기록이라는 사진의 기능과 권력의 공간에서 작가에게 재현의 대상과 방법은 그들이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을 따르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세상의 약자들에게 희망을 세상의 갑에게 일침을 놓아주고 싶다”며 사회적 공간에서의 투쟁을 선포했다. 나는 작가의 이러한 생각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권력의 도구로서의 사진의 역할로 보이지 않는다. 특정한 사회적 공간인 그들만의 공간을 침범하는 사진은 사회적 장(Field)을 뛰어넘는 도구이며, 또한 사진의 장(Field)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통해 고유한 그들만의 영역을 침투하고 벗어난다.

장(Field)의 개념은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사회학적으로 공간이나 영역 등을 표현하는 사회학적 새로운 용어이다. 기존사회를 사회학적 방법론(상부구조)으로 구분하고 설정하는 것이 아닌 어떠한 요인이 사회를 형성하고 구분 지음을 이야기한다. 부르디외는 이 방법론적 요인을 아비투스(Habitus)라는 심리적, 정서적, 개인적으로 형성하는 또 다른 구분짓기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이 사회(Society)에서 장(Field)의 용어로 사회를 구분짓고 있다. 또한 부르디외는 이러한 구분짓기를 통해 사진이라는 매체가 사회에서 사용되는 또는 활용되는 성격을 통해 매체의 사회적 위치를 정의하며 사진의 사회적 위치를 중간예술로 구분짓는다. 그래서 사진은 기껏해야 가족사진이나 찍거나 고급예술을 모방하려는 위치에

김영석 Youngseok KIM

머무는 중간예술이었다. 이러한 성격은 현시점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 듯하다. 스스로 사진의 위치를 중간예술에 머물게 하면서 사진이라는 매체를 어정쩡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르디외는 사회적 활용과 역할을 통해서 사진의 위치를 특정 짓는 사회학적 방법론(하부구조적 요인)을 통한 제기일 뿐이다. 사진이 소위 고급예술을 모방하려는 흉내와 어쭙잖은 작업들은 언제까지나 사진을 그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지금 계급론적 언급은 말하지 못하는 병어리 단어이지만, 중간예술을 벗어나는 방법은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재현과 의식의 전환(아비투스의 탈출 또는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 작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술을 접하면서 미술사 수업을 한 번 들었을 것이다. 에른스트 고프리치의 「예술과 환경」이라는 책은 미술사에서의 키워드를 양식사와 환영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앞서 많은 작가들은 그러한 노력을 해왔다. 그것이 소위 예술적 장치이다. 대형카메라를 활용하고 톤의 조화나 역사적 재현, 또는 의미적 분열, 구조적 전개 아니면 자아정체성이나 감정의 표출로서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재현. 이러한 장치의 역할은 사진을 그럴싸하게 보이기에만 가능하지만 김작가는 이러한 예술적 장치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다. 너무 달콤하고 귀엽고 제목처럼 기상천외한 병원이다. 왜 김작가는 흔한 사진적 장치나 예술적 이론 내지는 사상을 흠모하지 않았을까? 김민주초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이다. 자기밖에 모르고 친한 친구밖에 모르는 조용한 이기심으로 사진을 이야기하는 바보이다. 흑백필름으로 친구들만 찍었고, 힘겨운 사회생활을 하면서 유토피아적 동물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병들어 있는 사회와 자신에게 치유하고자 알약을 이야기했다. 지금은 스스로 학습기능의 새로운 장을 통해 만들어지는 기상천외한 환영이 된다. 환영은 자기중심적 재현을 이야기한다. 김작가에게 자기중심적 이미지는 자신의 에너지 보충용 달콤한 간식거리와 삶을 유지하게 해주는 병원이다. 김작가의 화려하거나 무게감 없는 달콤하고 큐티한 바보스러운 행위가 지금도 앞으로 계속되기를 바란다. 중간예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바보가 되는 방법이다. 바보들의 행진은 1975년에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장을 열려는 예술가적 모험과 도전이자 의무이다. 김민주초원의 일침은 조용한 재현을 통한 영역의 침투이자 장의 확장이다.

머리에 비단을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

전국을 누비며 물건을 팔았던 보따리장수를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불과 오십 년 전, 나의 할머니 전금희는 머리에 짐을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은 채 한 손으로는 기저귀 보따리를 쥐고 걸으며 물건을 팔았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행상뿐이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에게 어디론가 떠나는 것은 생계와 직결된 문제였음을 알게 되었고, 곁에서 머물며 듣게 된 이야기에는 등에 업혔던 딸과 아들조차 모르던 세월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갑작스레 가장이 된 여성들은 시장으로, 행상으로 나섰다. 엄마의 할머니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웠다. 그리고 나의 할머니는 그 일을 물려받게 되었다. 머리에 이고 다닌 물건은 동동구리무, 머릿기름, 그리고 섬유 산업이 발달한 대구에서 주로 생산된 비단을 비롯해 삼베나 이불, 양말 같은 것들이 많았다. 대구 근교뿐 아니라 경상도와 충청도의 여러 마을, 경기도의 시장, 강원도 산골과 부둣가, 전라도의 섬으로 장사를 다닌 일은 임신했을 때나 아이를 낳은 직후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역과 터미널에 도착하면 장이 서는 곳이나 낯선 마을을 물어 찾아갔고, 산 너머로 가기 위해 때로는 지나가는 차를 세우기도 했다. 기억 한편에는 추위를 견디며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나의 엄마를 품에 안고 지새운 밤과, 냇가가 보이면 천 기저귀를 빨아 겨우 말리던 날들이 있다. 아픈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 흠으로 동그랗게 약을 빚어 끓인 물을 먹인 일이나 더위에 허벅지가 쏠려 등에 업히기 싫어하는 아이의 엉덩이를 때려가며 업고 다닌 것은 여전히 저릿하다. 그럼에도 밥 한 숟가락과 방 한 칸 내어준 사람들을 떠올리며, 대구로 장사 오던 이들에게 따뜻한 밥 차려주고 잠 잘 자리 퍼줄 수 있었던 까닭을 말한다.

할머니의 기억을 함께 훑아보며 지도를 그리고, 할머니가 보았을지도 모를 것들과 걸었을지도 모를 길을 따라가 보았다. 할머니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글로 풀고, 상상을 더해 사진으로 재구성하여 오랜 기억을 나누었다.

모르는 집 대문을 두드려가며 끼니를 해결하고, 아이와 함께 여러 밤을 보내야 했던 삶이 있었다. 그렇게 키운 아이의 삶도, 그 아이의 아이로 태어난 나의 삶도 여전히 여기 있다.







26

발목을 어루만지던 나무껍질

2023



27

가야시장 #1

2023



금희의 과거와 미래

《머리에 비단을 이고, 등에는 아이를 업고》는 60년대 중반부터 20여 년간 행상으로 가정을 꾸린 하다원 작가의 외할머니에 관한 프로젝트다. 작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작업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할아버지의 장례 이후 남겨진 시골집과 가족 풍경을 담았었다.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무관심이 짙어진 요즘 작가가 8년 가까이 카메라를 들고 혈육인 노인들의 과거와 흔적을 찾아다니는 것에 관심이 갔다.

외할머니 전금희는 시어머니가 그랬듯 자연스레 행상이 되어 비단, 삼베이불, 구리무, 머릿기름을 등짐으로 메고 곳곳을 다녔다. 아이가 생겨서는 머리 짐을 이고 아이는 등에 업었다. 3년 전부터 외할머니의 일생을 자세히 듣게 된 하다원은 《시차의 집에서 눈을 뜨면》(2025)과 현재의 연작을 연이어 제작하고 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족의 역사와 기억에 눈을 뜨게 되고 이를 통해 자기 부리를 찾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릴 적의 가족관계는 따뜻하게 이해된 것이 전부였는데 외할머니의 구술을 들으면서 가족 사이에도 상처를 주거나 숨기는 등의 복잡한 사연들이 감춰져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치열한 삶으로 현재를 이룬 할머니에게 다른 친척들이 공정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욱 할머니의 삶에 연민과 애정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에게서 받았던 마음의 유산을 사진으로 돌려드리고자 하는 책임감이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다.

작가는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에 카메라를 들고 외할머니가 걸어서 행상 다녔던 문경, 원주, 단양, 안동, 영덕 등을 찾아다녔다. 이번 촬영의 고된 경험은 할머니가 날씨와 밤낮에 상관없이 비포장 된 산과 길을 걸어야만 했던 노동하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들이 휘발되지 않도록 많은 셔터를 눌렀다. 8월 말 첫 멘토링에서 작가는 풍경으로 가득한 포트폴리오를 펼쳐 보였다. 그동안 이야기로만 들었던 행상 지도의 실제 길을 걸으며 만난 풍경들이었다. 할머니가 쉬면서 혹은 아이에게 젖먹이며 바라봤을 산과 강, 장터, 골목을 똑같이 걷고 바라보며 많이 느껴보고자 했다. 하지만 시차가 생긴 시간과 시선이 갈을 리 없음을 이내 깨닫게 되었다.

두 달 후 그의 포트폴리오는 아련하게 할머니의 과거로 던져졌던 그의 시선이 자신과 외할머니의 현재 사이의 어느 지점으로 이동하였다. 작가는 할머니가 다녔던 장소를

김옥선 Oksun Kim

답사하면서 스스로 갖게 된 감정도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다. 촬영 이외에도 작가는 할머니가 다녔던 장소, 판매하던 물품을 조사하여 지도를 만들고 목록화했다. 더불어 1950년대 이후 시기 여성들이 장사를 했던 기록과 자료 사진 혹은 기타 기록을 찾아 참고했다. 이후 최종 사진 선별 며칠 전에 화상으로 만난 작가는 그동안 작업 된 사진들을 보면서 많이 덜어내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그간의 리서치와 할머니의 구술이 작가의 수행적 시간을 통과한 사진 이미지는 한층 자유롭고 할머니의 경험에 작가의 시선이 유연하게 오버랩 되어 있었다.

할머니의 구술을 체화시킨 이 작업은 단지 할머니 전금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근대 여성 행상인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작가는 강조한다. 작업하면서 힘들 때마다 ‘용기를 내자’고 스스로에게 말했는데 이는 할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 체득된 것이기도 하다. 연작에 나오는 할머니 얼굴과 풍경의 장면들은 작가 자신의 과거이기도 미래 그 자체이기도 하다.

제16회 KT&G 상상마당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

16th KT&G Sangsangmadang Korean Photographer's Fellowship

일정

포트폴리오 공모	2025년 3월 14일 - 4월 3일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025년 4월 18일
2차 인터뷰 심사	2025년 5월 23일
3차 공개 포트폴리오 리뷰 및 심사	2025년 12월 6일
올해의 최종 사진가 전시	2026년 상반기 예정

지원자격

사진을 매체로 하며, KT&G 상상마당 한국 사진가 지원 프로그램의 매니페스토에 준하는 작가

선정방법

1차 선정

포트폴리오 심사 후, 10인 선발

2차 선정

10인 인터뷰 심사 후, 올해의 사진가 3인 선발

3차 선정

올해의 사진가 3인 공개 포트폴리오 리뷰 및 심사 후, 올해의 최종 사진가 1인 선발

지원기간

1차 지원

2025년 6월 - 2025년 12월 (7개월) 올해의 사진가 3인

2차 지원

2026년 1월 - 2026년 8월 (8개월) 올해의 최종 사진가 1인

16th KT&G SKOPF Members

심사위원장	윤정미
심사위원	김영석, 김옥선, 이재구, 최연하
선정작가	김민주초원, 김찬훈, 하다원

KT&G 상상마당 운영진

총괄	수석 큐레이터 김일권
기획운영	큐레이터 박은샘, 큐레이터 최다혜
후원	고은사진미술관 GOEUN MUSEUM OF PHOTOGRAPHY
디자인	이사각

KT&G 상상마당

T	02-330-6229
F	02-2014-2014
A	서울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65(서교동)
H.P	www.sangsangmadang.com